

나가사키현 미나미시마바라시



미나미시마바라시(南島原市)는 나가사키현 남부의 시마바라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은 시마바라시(島原市), 서쪽은 운젠시(雲仙市)와 접해 있다.

1,000미터가 넘는 운젠산의 산기슭에서 남쪽으로 펼쳐지는, 지하수를 포함한 비옥하고 풍요로운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패류가 풍부한 아리아케해(有明海)와 다치바나만(橘灣)을 마주하고 있다. 온난한 기후에, 알맞은 강우량과 일조 시간을 갖춘 지역으로 나가사키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농업 지대다. 또 역사적으로는 일찍이 천주교가 전파되어 예로부터 난반무역(南蛮貿易,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상대로 한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한데, 올 여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하라 성터(原城跡)’는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島原·天草一揆)가 종언을 고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易,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상대로 한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한데, 올 여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하라 성터(原城跡)’는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島原·天草一揆)가 종언을 고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천주교도 관련 유산의 일부인 ‘하라 성터’

하라성은 당시 천주교인이던 다이묘(大名, 넓은 영지를 가진 봉건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에 의해 1604년에 축성되었다. 한편, 이 지역에는 모리타케성(森岳城, 현재의 시마바라성)도 축성되었는데, 일국일성령(一国一城の令, 한 지역당 한 개 성만 남긴다는 에도막부의 제한령)에 따라, 1615년 하라성은 허망하게 폐성(廢城)이 되었다. 이 무렵, 이 지역 주민들은 엄중한 천주교 탄압과 조세 징수로 인해 생활이 날로 어려워졌다. 여기에 기근과 흉작이 겹치면서 1637년, 폭정에 시달리던 시마바라 반도와 아마쿠사 지방의 약 3만 7천여 천주교인이 중심이 되어, 당시 16세였던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를 총대장으로 봉기해, 폐성이 된 하라성에서 약 12만의 막부군을 상대로 농성했다. 이것이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다. 봉기군은 3개월에



걸쳐 군량 보급로를 차단당한 끝에 전멸했다. 봉기 후, 하라성은 막부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봉기군의 시신은 건물 기와나 돌담의 거석 등에 흩으로 덮여 매몰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종교 탄압 초기에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의 잠복 천주교인들이 일으킨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는 막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일로 인해 그 후 2세기가 넘도록 바다를 통제하는 해금(海禁)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남아 있던 잠복 천주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은밀히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봉기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된 하라 성터는 전체가 종교 탄압 초기의 물증이 되고 있다.

규슈 올레,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규슈에서 17번째로 인증된 '미나미시마바라 코스'는 구치노쓰(口之津)의 온화한 경치와 난반무역으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 하야사키반도(早崎半島)의 사계절 자연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다. 걷다 보면 하야사키반도의 최고봉인 '노로시아마(烽火山) 산', 예전엔 거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수욕장과 산을 굽어볼 수 있는 '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호쾌하게 소용돌이 치는 조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세즈메자키 등대(瀬詰崎灯台)' 등의 절경 포인트가 있다. 또 코스 중에는 지역 주민이 올레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는 '무료 쉼터'도 있어 지친 몸을 쉴 수 있다. 코스 후반에는 시마바라반도의 지질학적 명소를 일컫는 '지오 사이트' 가운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하야사키 해안(早崎海岸)'과 수령 300년이 넘는 '용나무 군락' 등이 있고, 중반에는 메이지 시대(明治時代)부터 구치노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던 '구치노쓰 등대(口之津灯台)'가 있어, 지금은 올레 이용자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중점에는 과거의 세관을 자료관으로 사용하는 '구치노쓰 역사민속자료관'도 있는데, 당시의 난반무역과 석탄 선적항으로 번성했던 구치노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미나미시마바라 코스는 이





곳 주민들을 비롯해, 규슈 각 현의 올레 이용자, 멀리 본고장 한국에서 오신 방문객들도 찾고 있다.

감동을 창조하는 곳, 미나미시마바라

자연이 풍요로운 미나미시마바라의 주민은 정말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자연이 맞아주는 가운데, 최고의 '오모테나시(극진한 환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나미시마바라의 민박집에서는 투숙객이 그 가정의 가업을 체험하는 규칙이 있어, 체재 중에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각 가정마다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그 순간에 만끽할 수 있는 체험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매력적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어 편하게 보내는 귀중한 시간은 '나 안 돌아 갈래',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의 시골 생활 체험'으로서 많이 이용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심과 안전을 모토로 무엇보다 멋진 만남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맛의 미나미시마바라

자연이 풍요로운 미나미시마바라는 맛있는 식재료가 넘쳐나는 식문화의 보고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으로 감자, 양파, 토마토 등 다양한 농산물이 수확되고 있다. 또 어패류가 풍부한 아리아케해와 다치바나만에서는 나가사키현의 브랜드 생선인 '아라카부' 즉, 씬뱀이를 비롯해, 시마바라반도의 하시리다코(뛰는 문어), 닭새우, 보리새우, 미역, 톳 등의 어획량이 많다.

그리고 미나미시마바라는 일본 내 소면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시마바라 테노베(수타) 소면'의 산지다. 그 특징은 면발에 탄력이 있고 표면이 매끈해 목 넘김이 좋은 식감에 있다. 수타 제조법은 시간을 들여 반죽하고, 숙성을 거듭하며 늘여야 수타 특유의 강한 탄력이 생긴다. 또 소면은 밀가루와 물이 그 맛을 크게 좌우하는데, 시마바라의 수타 소면에는 좋은 물 100선에 뽑힌 운젠 산록의 맛있는 샘물이 사용된 것도 맛의 비결 중 하나다. 이처럼 미나미시마바라는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이다

(집필 : 미나미시마바라시, 협력 : CLAIR, Seoul)

